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0, Vol. 22, No. 3, 843-862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5년 종단연구 - 성별 및 부모·또래와의 애착을 중심으로 -

김 아 름　　이 지 희　　최 보 영†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종단적 접근, 즉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성숙 변화패턴을 추정하고 이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성별, 부모애착, 친구애착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부모애착, 친구애착이 진로성숙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의 중 2, 중 3, 고 1, 고 2, 고 3 총 5년간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중 2에서 고 3까지의 5년간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진로성숙의 초기치(중 2)에 있어서 성별, 부모애착은 정적으로, 친구애착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그리고 친구애착이 낮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진로성숙의 변화율과 관련해서는, 부모애착은 부적으로, 친구애착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변화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비율로 증가하며,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성숙도의 변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성별과 부모애착, 성별과 친구애착의 상호작용 효과는 진로성숙도의 초기치 및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한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성숙 발달, 다층모형, 성별, 부모애착, 친구애착

† 교신저자 : 최보영,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E-mail: qhdud74@hanmail.net

www.kci.go.kr

서 론

청소년들은 개인이 자신의 규칙과 규범을 설정하고 자아인식을 위해 노력하는 등 많은 발달적 과업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발달과업이다(최수미, 2009). 진로와 관련된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함으로써 진로결정과 관련된 기본요인들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직업 및 진로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한다(Herr & Cramer, 2004). 이에 많은 진로발달 이론가들은 청소년기를 진로관련 의식 및 태도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며(Super, 1990; Crites, 1974), 10대 후반의 중·고등학교시기를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Super, 1976). 즉 다른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같이 진로에 대한 태도 및 선택 등의 기능 또한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진로발달이 청소년기에 더욱 성숙, 발달하여 이 시기에 직업정체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업을 탐색하고 조정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은 다양한 정보의 취합 및 선별, 합리적인 의사결정, 가치관 형성 등 발달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적인 환경적 여건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직업 세계의 확장과 직업 가치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 지식주기의 급격한 축소, 정보화로 인한 인력 감축, 새로운 직업의 도래로 장래의 직업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어려움도 함께 가져다주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의 실업문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및 소질을 일찍부터 고려하여 평생 즐거운 직업생활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 본인도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하며, 어느 때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박완성, 2007) 현명한 진로선택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진로 성숙이란 진로 선택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의 준비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 각 개인의 진로발달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진로성숙도는 연속적인 직업발달 과정에서 한 개인이 도달한 발달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많은 진로발달 이론가들에 의해 '진로의식성숙' 혹은 '진로태도성숙' 등의 명칭과 함께 다양하게 정의되어오고 있다(Naidoo, Bowman, & Gerstein, 1998; Stead & Watson, 1998). Crites (1961)는 진로성숙도를 '진로선택의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적·정의적 특성의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직업준비도'로 정의하면서 Super (1955)의 직업성숙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달시켰고, Gribbons & Lohnens(1964)는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준비도 혹은 자아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잘 통합할 수 있는 준비도(Hoyt, 1977)'로 정의하였다. 보다 최근에 Savickas(1999)는 '정보가 풍부하고(well-informed), 나이에 적절한 진로를 선

www.kci.go.kr

택하고 진로발달 과업들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준비도'로 진로성숙도를 정의하였다.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진로발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으며, 많은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Super, 1953; Tuckman, 1974; Gottfredson, 1981).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연구되어진 변인은 성별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여학생이 진로발달 면에서 남학생에 비해 더 성숙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상혁, 2001; 이기학, 한종철, 1997; 이기학, 1997). 예로써, 이기학(1997)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학생에 대한 진로성숙도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으며(김경령, 2001; 정윤경, 2005), Holland (1981), 양경숙(2004)은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이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 나아가 진로성숙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도 높다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져있으며 (김정원, 김옥인, 2007; 박용관, 2003; 신은영, 김누리, 2004; 정정은, 2004),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정적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김현숙, 2001; 양경숙, 2004). 한편, 공부압력은 진로태도성숙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완성, 2007; 이종범, 2007). 즉, 학생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진로에 부담을 주어 진로태도성숙도를 낮추고 진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완성, 2007).

한편, 청소년의 진로 선택 및 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모 양육태도나 애착 및 심리적 독립 또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김영근, 2005; 김은진, 천성문, 2001; 이상무, 2004; 정행옥, 2004; Blustein et al., 1991; O'brien, 1996),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김혜경, 2003; 신미자, 2002),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자녀의 진로발달이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박효희, 성태제, 2008; 이효성, 2001; Lee, Hughey, 2001). 청소년의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 및 애착 정도가 다른 심리적 변인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듯이 청소년의 진로발달 측면에도 유의미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 이외에도 발달단계상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관계는 또래 및 친구관계라고 할 수 있다. 친밀하고 원만한 또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자기상을 확립하고 문제해결 및 대인관계 형성 능력을 습득해 나가듯이, 안정적인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효성, 2001; 하성헌, 2006). 즉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애착이 잘 형성

www.kci.go.kr

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바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특성 요인, 부모, 친구 등 학교특성 요인들이 진로성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진로성숙은 발달이라는 과정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기에 각각의 요인들이 상호 간 어떤 작용을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지도 주의 깊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주요 변인인 성별은, 심리적·신체적 발달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변인으로, 도덕성 및 진로정체성 등의 발달적 양상을 보이는 심리적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되어지고 있다(김성희, 방희정, 2008; 차정은 외, 2007). 진로발달은 개인의 내적인 변인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인 환경들의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가 청소년기 진로성숙의 변화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성별과 부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애착이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로서 이희영(199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유형이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학생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모두가 진로성숙의 하위차원인 확신성 및 준비성 차원과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진로성숙의 준비성 및 독립성 차원과는 정적관계에 있으나 목적성 차원에서는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라서 진로관련 심리적변인인 진로검색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에 따라 달랐다는 Ryan 등(1996)의 국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또한 성별과 친구애착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끼치는 상호작용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친구애착변인이 남녀에 따라서 진로성숙도에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미형, 최상미, 엄태영(2006)의 연구에 따르면, 친구애착은 남학생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여학생은 직접적으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에는 또래와의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와의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친구애착과 성별의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중·고등학교 시기별 또래관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학교 이후의 친구 애착정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혹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성별, 부모애착, 친구애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별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연구 되고 있으나(이종범, 2007)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 변인으로서, 성별이 진로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기존의 횡단적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성별이 개인 특성적 측면의

www.kci.go.kr

변인이라면 관계성 및 독립성과 관련이 깊은 변인으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인 중 하나로 애착을 들 수 있다(김수임, 김창대, 2009). 안정적인 부모애착은 진로탐색능력의 촉진, 진로장벽 극복, 심리적 독립의 촉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로발달과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부모애착은 진로성숙에 의미 있게 영향을 끼친다.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선혜연, 김계연, 2007), 부모의 애착과 심리적 독립 변인에 대한 연구가 31.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곧 애착 변인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애착의 대상이 부모로부터 또래로 옮겨가는 현상(Steinberg & Silverberg, 1986)을 고려해 본다면, 부모와의 애착뿐만이 아니라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진로성숙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상담 실무현장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학업성취와 같은 변인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관계적 변인인 부모와 친구와의 애착을 살펴보는 것이 상담 및 교육 장면에 기여할 수 있는 면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빈번히 연구되었던 횡단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의 발달을 확인하고,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이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애착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이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의 여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요약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성별, 부모애착, 친구애착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부모애착, 친구애착이 진로성숙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한국 청소년 패널의 중 2패널 1, 2, 3, 4,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도별 연구대상 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5차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90% 이상의 표본 유지율을 보였으면, 5년 간 남녀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2차, 3차, 4차, 5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표본에서 각각 7.6%, 9.4%, 9.5%, 14%의 표본이 유실되었다. 지역별 연구대상 수를 살펴보면, 서울 595명(17.3%), 경기도 964명(28%), 경상도 1025명(29.7%), 전라도 381명(11%), 충청도 360명(10.4%), 강원도 124명(3.6%)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부모애착, 친구애착변인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진로성숙 발달에 대한 부모애착,

www.kci.go.kr

표 1. 연도별 연구대상 수

차수 (년도)	학년	남 (%)	여 (%)	총	유실률
1차 (2003년)	중 2	1,725명 (50.0%)	1,724명 (50.0%)	3,449명	
2차 (2004년)	중 3	1,594명 (50.0%)	1,594명 (50.0%)	3,188명	7.6%
3차 (2005년)	고 1	1,572명 (50.3%)	1,553명 (49.7%)	3,125명	9.4%
4차 (2006년)	고 2	1,566명 (50.0%)	1,555명 (50.0%)	3,121명	9.5%
5차 (2007년)	고 3	1,510명 (50.9%)	1,457명 (49.1%)	2,967명	14.0%

친구애착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진로성숙도 측정을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여 타당화한 한국형 진로성숙도 검사(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 중 한국청소년 패널에서 선별한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문항은 3개의 하위요인(계획성, 독립성, 결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측정 문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아래의 원문항에서 볼 수 있듯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어,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하여 최종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3요인으로 구성된 7문항에 대해 주축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는 3요인에 대한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 누적분산도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1차년도 고유값: 1.0, 누적분산: 61.0%; 2차년도 고유값: 1.0, 누적분산: 66.9%; 3차년도 고유값: 1.0, 누적분산: 68.3%; 4차년도 고유값: 1.0, 누적분산: 71.0%),

표 2. 진로성숙도 문항

문항번호	문항내용
1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2	나는 아직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직업의 종류, 성격 등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3	나는 현재, 직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하고 싶은 직업이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4	나는 현재, 내가 갖고 싶은 장래 직업이 자주 바뀐다.
5	나는 현재, 장래 직업선택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6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7	나는 현재, 나의 장래 직업선택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www.kci.go.kr

표 3. 부모애착 문항

문항번호	문항내용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6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표 4. 친구애착 문항

문항번호	문항내용
1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2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3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5차년도의 경우 고유값은 0.9, 누적분산은 71.5%로 나타났다. 다섯 시점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63, 0.71, 0.73, 0.76, 0.79로 나타났다.

진로성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부모애착, 친구애착을 검증하였다.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자료의 부모애착, 친구애착에 관한 문항은 각각 표 3, 표 4와 같다. 부모애착의 경우, 모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축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의 단일요인에 대한 고유값(eigenvalue)이 모두 3.5 이상 누적분산도 1차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60% 이상으로 분석되었다(1차년도 고유값: 3.5, 누적분산: 58.6%; 2차년도 고유값: 3.7, 누적분산: 62%; 3차년도 고유값: 3.8, 누적분산: 63.2%; 4차년도 고유값: 3.9, 누적분산: 65.0%; 5차년도 고유값: 4.0, 누적분산: 65.9%). 부모애착의 문항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어 점수가 클수록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섯 시점에서 부모애착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86, 0.88, 0.88, 0.89, 0.90 이었다.

친구애착을 묻는 문항은 아래와 같이 모두 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친구애착을 묻는 하위 문항의 '그 친구들'이란 응답자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특정 친구를 의미한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질문지를 보면, 친구애착 문항을 물어보기 이전에 '매우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설명해주고, 그런 모든 친구들을 생각하면

www.kci.go.kr

서 질문에 응답하라는 문구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친구애착 측정도구는 친한 친구에게 느끼는 친밀감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축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의 단일 요인에 대한 고유값(eigenvalue)이 모두 2.4 이상 누적분산도 모두 60% 이상으로 분석되었다(1차년도 고유값: 2.4, 누적분산: 60.7%; 2차년도 고유값: 2.7, 누적분산: 67.7%; 3차년도 고유값: 2.7, 누적분산: 67.8%; 4차년도 고유값: 2.7, 누적분산: 66.9%; 5차년도 고유값: 2.7, 누적분산: 67.5%). 친구애착을 묻는 문항 역시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어 점수가 클수록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섯 시점에서 친구애착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75, 0.83, 0.82, 0.82, 0.82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로운 측정도구로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다층 모형(multilevel models)을 적용하였다. 다층모형은 흔히 HLM(hierarchical linear models)이라고도 한다. 다층모형에서는, 1단계에서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2단계에서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선형모형의 예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text{1단계: } Y_{ij} = \pi_{0i} + \pi_{1i}\ \text{시간}_{ij} + \varepsilon_{ij},\ \varepsilon_{ij} \sim N(0,\ \sigma^2)$$

위 식에서 Y_{ij}는 개인 i의 시점 j에서의 측정치를 나타내며, 시간$_{ij}$는 개인 i의 측정시점에 따른 시간 코딩값이 된다. 시간변수의 첨자 i는 개인에 따라서 측정횟수와 측정시점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초기시점을 0으로 코딩하게 되면 π_{0i}는 개인 i의 초기치(initial status)를 나타내고 π_{1i}는 변화율(change rate)이 된다. ε_{ij}는 시점 j에서의 개인 i에 대한 오차이다. $e_{ij} \sim N(0, \sigma^2)$는 e_{ij}가 평균이 0, 공통분산 σ^2를 가지는 정상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나타낸다.

$$\text{2단계: } \pi_{0i} = \gamma_{00} + \zeta_{0i},$$
$$\pi_{1i} = \gamma_{10} + \zeta_{1i}$$

위 식에서 γ_{00}와 γ_{10}은 각각 초기치와 변화율의 전체 평균을 나타낸다. $\zeta_{0i,}$와 ζ_{1i} 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 $_i$의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나타낸다. 이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면,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간의 차이는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분산-공분산 행렬 T는 아래와 같다.

$$T = \begin{bmatrix} \sigma^2_0, & \sigma_{01} \\ \sigma_{10}, & \sigma^2_1 \end{bmatrix}$$

여기서 σ^2_0,과 σ^2_1은 각각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을 나타낸다. $\sigma_{01}=\sigma_{10}$은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다층모형은 SAS 8.2의 PROC MIXE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www.kci.go.kr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가 중2를 시작으로 고 3까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다층성장모형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종단자료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결측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층모형에서는 모든 개인이 모든 측정 시점에서 모두 응답한 완전자료(complete data)가 필수는 아니다. 따라서 불완전(incomplete cases)도 자료 분석 시 제외되지 않았다.

성장모형 분석 결과

선형모형의 적용: 무조건 모형

진로성숙에 있어서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추정하기 위해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위의 표 2에 나오는 7문항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이 결과는 표 6과 같다. 시간 값은 중 2, 중 3, 고 1, 고 2, 고 3을 각각 0, 1, 2, 3, 4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π_{0i} 은 초기치(즉, 중 2 때의 진로성숙도)의 의미를 갖는다.

표 6의 결과에 의하면 진로성숙도의 평균 초기치(중 2)는 3.59이며 평균 변화율은 약 0.068이다. 진로성숙도의 변화율이 정적으로

표 5. 진로성숙도, 부모애착, 친구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

시점	진로성숙도	부모애착	친구애착
중 2	3.59 (.62)	3.34 (.78)	4.05 (.65)
중 3	3.61 (.66)	3.42 (.76)	4.16 (.67)
고 1	3.72 (.64)	3.43 (.73)	4.24 (.63)
고 2	3.72 (.66)	3.46 (.75)	4.23 (.63)
고 3	3.86 (.70)	3.51 (.77)	4.27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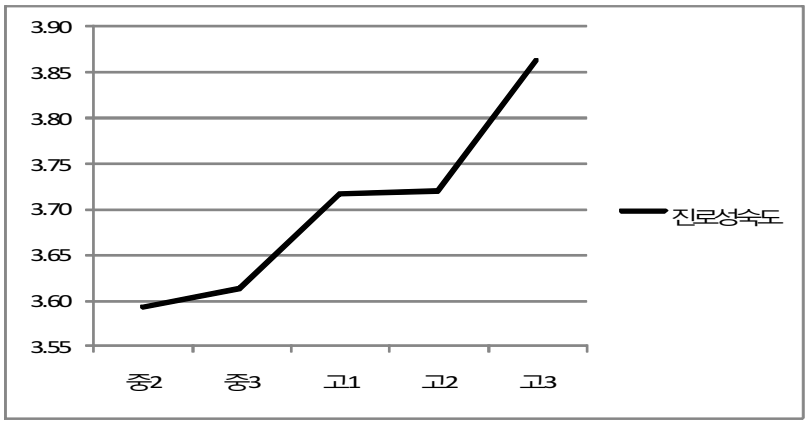

그림 1. 5년 간 진로성숙 변화 그래프

www.kci.go.kr

표 6. 선형모형 결과

	추정치	표준오차
γ_{00}	3.57*	0.0097
γ_{10}	0.06*	0.0034
σ^2_0	0.17*	0.0082
σ^2_1	0.014*	0.0010
$\sigma_{01} = \sigma_{10}$	-0.018*	0.0024

*$p < .001$.

유의하므로 중 2에서 고 3까지의 5년간 진로성숙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σ^2_0과 σ^2_1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모형의 chi-square값은 2806.17 (df=3)이었으며,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sigma_{01}=\sigma_{10}$)은 -0.018이었다.

조건모형

성별, 부모애착, 친구애착이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층모형을 적용하였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남자 청소년을 0, 여자 청소년을 1로 각각 코딩하였다. 독립변수가 투입된 모형을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s)이라고 한다. 조건모형의 1단계와 2단계 모형은 아래와 같다.

$$\text{1단계: } Y_{ij} = \pi_{0i} + \pi_{1i} \text{ 시간}_{ij} + \varepsilon_{ij},\ \varepsilon_{ij} \sim N(0,\ \sigma^2)$$

$$\text{2단계: } \pi_{0i} = \gamma_{00} + \gamma_{01} \text{ 성별}_i + \gamma_{02} \text{ 부모애착}_i + \gamma_{03} \text{ 친구애착}_i + \zeta_{0i},$$

$$\pi_{1i} = \gamma_{10} + \gamma_{11} \text{ 성별}_i + \gamma_{12} \text{ 부모애착}_i + \gamma_{13} \text{ 친구애착}_i + \zeta_{1i}$$

조건모형의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에는 성별, 부모애착, 친구애착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 부모애착은 정적으로, 친구애착은 부적으로 각각 나타나, 초기치(중 2) 값이 여학생일수록,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그리고 친구애착이 낮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부모애착, 친구애착의 독립변인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애착의 경우엔 부적으로, 친구애착인 경우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의 경우,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성숙도가 덜 증가(또는 감소)하며, 친구애착의 경우에는, 친구애착이 높은 집단의 시간에 따른 진로성숙도 변화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큼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그림 2, 그림 3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애착이 높은 집단과 애착이 낮은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의 각 집단의 약 상위 10%와 하위 10%에 해당하는 집단을 선별하여 편의상 애착 상집단과 애착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중 2(초기치)때는 부모애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지만, 변화율에 있어서는 부모애착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진로성숙이 더 빠르게 성장함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친구애착의 경우에는 중2(초기치)때는 친구애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진로성숙도가 낮지만, 변화율에 있어서는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더 빠르게 성장함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표 7. 진로성숙도의 초기치과 변화율에 대한 성별, 부모애착, 친구애착의 효과

구분	고정효과 (fixed effect)		추정치	표준오차
초기치	γ_{00}	절편	3.541***	0.0129
	γ_{01}	성별	0.052**	0.0181
	γ_{02}	부모애착	0.037***	0.0015
	γ_{03}	친구애착	-0.007*	0.0030
변화율	γ_{10}	절편	0.060***	0.0049
	γ_{11}	시간 × 성별	0.009	0.0069
	γ_{12}	시간 × 부모애착	-0.004***	0.0007
	γ_{13}	시간 × 친구애착	0.009***	0.0013

$^{***}p < .001$, $^{**}p < .01$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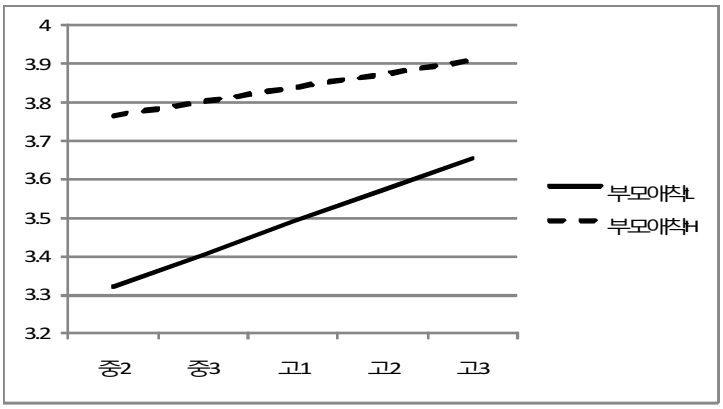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애착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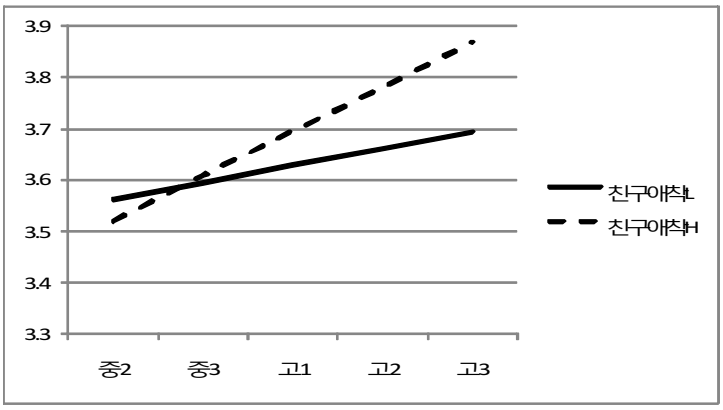

그림 3. 친구애착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

www.kci.go.kr

다음으로, 성별과 부모애착, 성별과 친구애착의 상호작용 효과가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앞선 모형에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정도와 성별에 따른 친구애착 정도를 새로운 변수로 추가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형의 1단계 Yij 에 대한 식은 위의 조건모형과 동일하고, 2단계, 복합모델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2단계: $\pi_{0i} = \gamma_{00} + \gamma_{01}$성별$_i + \gamma_{02}$부모애착$_i +$
γ_{03} 친구애착$_i + \gamma_{04}$ 성별$_i$
*부모애착$_i + \gamma_{05}$성별$_i$
*친구애착$_i + \zeta_{0i}$,

$\pi_{1i} = \gamma_{10} + \gamma_{11}$성별$_i + \gamma_{12}$부모애착$_i +$
γ_{13}친구애착$_i + \gamma_{14}$성별$_i$
*부모애착$_i + \gamma_{15}$성별$_i$
*친구애착$_i + \zeta_{1i}$

복합모델: [$\gamma_{00} + \gamma_{10}$시간$_{ij} + \gamma_{01}$성별$_i +$
γ_{02}부모애착$_i + \gamma_{03}$친구애착$_i$
γ_{04}성별$_i$ *부모애착$_i + \gamma_{05}$성별$_i$
*친구애착$_i$ + (γ_{11}성별$_i +$
γ_{12}부모애착$_i + \gamma_{13}$친구애착$_i$
$+ \gamma_{14}$성별$_i$ *부모애착$_i +$
γ_{15}성별$_i$ *친구애착$_i$) *시간$_{ij}$] +
[$\zeta_{0i} + \zeta_{1i}$시간$_{ij} + \varepsilon_{ij}$]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정도와 성별에 따른 친구애착 정도를 새로운 변수로 추가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성별과 부모애착, 성별과 친구애착의 상호작용 효과는 진로성숙도의 초기치 및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표 8. 진로성숙도의 초기치과 변화율에 대한 성별, 부모애착, 친구애착, 성별과 부모애착, 성별과 친구애착의 효과

구분	고정효과 (fixed effect)		추정치	표준오차
초기치	γ_{00}	절편	3.540**	0.0130
	γ_{01}	성별	0.053**	0.0183
	γ_{02}	부모애착	0.038**	0.0021
	γ_{03}	친구애착	-0.010*	0.0040
	γ_{04}	성별*부모애착	-0.002	0.0029
	γ_{05}	성별*친구애착	0.007	0.0060
변화율	γ_{10}	절편	0.060**	0.0050
	γ_{11}	시간 × 성별	0.009	0.0070
	γ_{12}	시간 × 부모애착	-0.005**	0.0010
	γ_{13}	시간 × 친구애착	0.009**	0.0017
	γ_{14}	시간 × 성별 × 부모애착	0.001	0.0014
	γ_{15}	시간 × 성별 × 친구애착	-0.001	0.0026

**$p < .001$, *$p < .05$.

www.kci.go.kr

표 9. 무조건 모형, 조건 모형, 복합모델의 적합도 지수 비교

	Log Likelihood	AIC	BIC
무조건 모형	28661.5	28669.5	28694.1
조건 모형	27550.9	27558.9	27583.4
복합모델	27590.2	27598.2	27622.8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성별과 부모애착, 그리고 친구애착의 효과는 앞선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초기치에서는 성별, 부모애착, 친구애착이 보다 유의미한 값을 보였으며, 변화율에서는 부모애착이 부적으로 친구애착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개의 모형(무조건 모형, 조건 모형, 복합모델)은 모두 위계적으로 내재된 모형으로, 각 모형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를 AIC와 BIC로 평가해 본 결과, 아래의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조건모형이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애착(부모애착, 친구애착)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투입한 복합모델에서 새롭게 투입된 변인들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성별, 부모애착, 친구애착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진로성숙도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진로성숙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청소년 패널의 중 2패널 1, 2, 3, 4,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기존의 횡단적 연구방법으로는 살펴볼 수 없었던 진로성숙도의 5년간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았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의 형태와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조건 모형에서의 진로성숙도 변화율(0.068,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여, 5년간의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을 시작으로 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전의 종단 연구 결과들(박완성, 2007; 박효희, 성태제, 2008; 이종범, 2007)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결과들이 2년 혹은 3년간의 중학교 시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년의 기간을 포함한 5년간(중2-고3)의 진로성숙도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매해 꾸준

www.kci.go.kr

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 발달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별 및 애착(부모애착 및 친구애착) 변인이 5년간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의 변인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는 초기치에서만,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은 초기치 및 변화율 둘 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중 2의 초기치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았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변화율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남·여학생 간의 진로성숙도가 비슷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 2 초기치에서 보여 지는 성별에 따른 차이, 즉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양상이 5년 간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또래에서의 성차를 비교한 횡단연구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더 높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김상혁, 2001; 이기학, 한종철, 1997; 이기학, 1997)와 같은 결과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중·고등 포함), 같은 학년끼리 비교해 봤을 때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청소년 관련 교육자 및 상담자들은 성별에 따른 발달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로 교육 및 진로 지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부모와의 애착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 2 초기치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 정도에 따라 진로성숙도 변화율에 다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애착과 진로성숙도와의 정적 관계는 이효성(2001)과 Lee & Hughey(2001)와 같은 기존의 횡단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보고되었던 결과이지만,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진로성숙도가 더 크다고 분석된 본 연구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층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서는 변화율의 값이 음의 값을 보여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율로 변화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것이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 2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중 2 때 측정된 진로성숙도의 높은 초기치가 고 3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애착이 높은 집단의 고 3 때의 진로성숙도가 부모와의 애착이 낮은 집단의 고 3 때의 진로성숙도보다 그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애착이 낮은 집단의 경우 부모애착이 높은 집단에 비해 중 2의 초기치가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진로성숙도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분석되었기 때문에 변화율에 있어서 음의 값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각 시점 별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와의 상관이 .13 이상의 정적인 값을 보이고 있는 결과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진로성숙

www.kci.go.kr

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애착 고집단이 중 2 때 보인 높은 진로성숙도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본 연구 결과의 발달 양상을 고려한다면,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초기(중학교 시기)에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와의 애착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초기치(중 2)에서는 친구와의 관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진로성숙도는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진로성숙도는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친구와의 애착은 측정 당시 응답자가 친밀하다고 느끼는 특정 대상과의 애착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측정 시점마다 애착의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상과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이 또래 친구와 친밀하고 돈독한 애착관계를 얼마만큼 잘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성숙도의 성장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그림 3 참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성숙발달에 있어서 안정적인 또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청소년 초기보다 청소년 후기(고등학교 때)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진로성숙도와 애착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의 애착의 경우에는 청소년 초기인 중 2 때의 애착 관계가 진로성숙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와의 애착의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의 초기치보다 고등학교 후반에 들어갈수록 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성장해나가지만, 점차 성인으로서의 독립성 및 자립성이 발달해감에 따라 부모 보다는 또래와의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Steinberg & Silverberg, 1986).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입 및 프로그램 구성 시, 청소년 초기(중학교 시기)에는 부모와의 애착에, 청소년 후기(고등학교 시기)에는 또래와의 관계 및 애착 형성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셋째, 성별과 부모애착, 그리고 성별과 친구애착이 진로성숙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부모애착의 상호작용, 성별과 친구애착의 상호작용 효과는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부모애착의 경우를 예로 들어 자세히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중 2)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중 2때의 진로성숙도와 부모애착의 관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양상은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남 · 여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의 효과 또한 성별에 따라 달라짐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성숙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부모애착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친구애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친구애착이 진로성숙도의 초

www.kci.go.kr

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남·여학생의 차이 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기존의 횡단연구에 의하면(이효성, 2001; Lee & Hughey, 2001; 조미형 외, 2006),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 이러한 양상이 종단적 측면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여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초기치 및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과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문항 중 일부 문항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으며, 제한된 문항으로 인해 하위영역별 분석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애착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위영역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좀 더 다양한 문항구성을 통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을 시작으로 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5년간의 종단적 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발달을 확인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달하는 진로성숙에 성별,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원만히 잘 맺는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결정에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진로성숙도가 발달함에 있어 안정적인 애착이 진로성숙도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의미로,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시 관계 형성 및 친밀감 증진과 관련된 교육도 구성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는 부모와의 애착에, 청소년 후기에는 또래와의 애착에 비중을 둔 진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을 연구자가 직접 작성·선별하지 못하고 기존에 이미 실시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정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문항수로 구성된 타당화 된 문항을 사용하여 4년 또는 5년간의 종단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성별 및 애착 변인을 설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른 진로성숙 발달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진로성숙과 부모, 친구와의 관계적 측면뿐 아니라, 진로성숙 발달을 설명하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등)의 영향도 고려한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더 비중 있는 변인을 파악함으로써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종단적 자료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결과에서는, 성별과 애착의 정도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초기치 및 변화율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살펴볼 수 없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진로성숙도와 성별 및 애착과의 관계

www.kci.go.kr

를 밝힐 수 있는 주요 변인을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알아본 후,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후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김경령 (2001).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상혁 (2001). 고등학생의 지역 및 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관한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희, 방희정 (2008). 애착, 관계적 자아 및 도덕성 간의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37-152.

김수임, 김창대 (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10(3), 1573-1591.

김영근 (2005). 심리적 독립과 애착 및 상호의존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직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4(1), 147-162.

김정원, 김옥인 (2007).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수준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16(4). 75-82.

김현숙 (2001).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 (2003).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완성 (2007).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20(4), 87-101.

박용관 (200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효희, 성태제 (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1), 117-142.

선혜연, 김계연 (2007).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 - 1997년 ~ 2006년. 상담학연구, 8(4), 1467-1483.

신미자 (2002).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은영, 김누리 (2004). 청소년기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탐색. 아동교육, 13(2), 185-199.

양경숙 (2004).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 존중감, 직업 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이기학, 한종철 (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정도의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35-349.

이상무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범 (2007).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실과교육연구학

www.kci.go.kr

회, 13(2), 115-134.

이효성 (200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희영 (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관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239-259.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요강. 연구보고 RR91-5-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윤경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개인, 가정,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 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49-292

정정은 (2004).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행옥 (2004). 여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성역할정체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미형, 최상미, 엄태영 (2006). 남녀 청소년의 부모·친구·교사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 81-97.

차정은, 김아영, 이은경, 김봉환 (2007).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미결정의 성별 차이 및 발달 경향성 검증. 교육심리연구, 21(4), 923-944.

최수미 (200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연구. 상담학연구, 10(4), 2257-2271.

하성헌 (2006). 부모,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Crites, J. 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255-259.

Crites, J. O. (1974). *Career development process: A model of vocational maturity*. In E. L. Herr (Eds.), Vocational guidance and human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Gottfredson, L.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80.

Gribbons, W. D., & Lohnes, P. R. (1964). Relations among Measure of Readiness for vocational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1), 69-76.

Herr, E. L. & Cramer, S. H. (2004).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6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Holland, M. (1981). Relationships between vocational development and self-concept in sixth grad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228-236.

Lee, Hee-young, & Hughey, K. F. (2001).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4), 279-293.

Naidoo, A. V., Bowman, S. L., & Gerstein, L. H. (1998). Demographics, causality, work salience, and the career maturity of African-American

www.kci.go.kr

students: A causal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3*, 15-27.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257-274.

Ryan, N. E., Solberg, V. S., & Brown, S. D.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84-89.

Savickas, M. L. (1999).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 326-336.

Stead, G. B., & Watson, M. B. (1998). The appropriateness of Super's career theory among black South African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28*, 40-3.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Super, D. E. (1955). The dimension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Super, D. E. (1976). *Career educational and the meaning of work.* Monographs on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 C.: The Office of Career Education, U. S. Office of Education.

Super, D. E. (1990). *A life 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pp.197-261). Sna Francisco, CA: Jossey-Bass.

Tuckman, B. W. (1974). An age-grade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 193-212.

원 고 접 수 일 : 2010. 06. 28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8. 10
게 재 결 정 일 : 2010. 08. 1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0, Vol. 22, No. 3, 843-862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on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Gender,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A Reum Kim **Ji Hee Lee** **Bo Young Choi**

Korea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attern of change in adolescent career maturity and effects of gender,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on its growth by using multilevel models.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on the relations of career maturity with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were also scrutinized. Five year longitudinal data of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 were employed. Results indicated that career maturity during five years linearly increased and the levels of career maturity at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were affected by gender and parental attachment positively, but by peer attachment negatively. Growth rates of career maturity were influenced by parental attachment negatively but peer attachment positively. However,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on the growth models of career maturity were not significant.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multilevel model, gender,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www.kci.go.kr